# 영광에 990억 들여 9.9㎞ 열병합발전소 건립

2022년 6월 상업운전 지역 고용창출 등 기대

영광에 9.9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열병합발 전소가 건립된다.

24일 영광열병합발전㈜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현장에서 SRF(고형연료제 품)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안전기원제 및 착공식 을 열었다.

총사업비 990억원이 들어가는 SRF발전소는 2 년 여의 공사를 거쳐 2022년 6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건축면적 9158㎡에 연료공급설비와 연소로, 보 일러, 연소가스처리설비, SRF제조시설 등이 갖춰 진다. 시공은 환경설비 전문기업인 테크로스 워터 앤에너지가 맡았다.

열병합발전소는 단순히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시 설이 아닌 고형연료제품(SRF) 품질기준에 적합 한 연료만을 1200도의 고온에서 연소시켜 오염물

특히 여러 단계의 최신 기술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로, 환경오 염물질로부터 매우 안전한 발전소로 평가받고



지난 20일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서 열린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착공식에서 참가자들이 테이트커팅을 하고 있다.

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과 함께 매년 300억원대 매출로, 지역경제에도 상 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또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각종 문화행사, 독거노인과 저소득 층 지원사업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할 예정이

이날 착공식에는 영광열병합발전㈜ 김상풍 회장과 김재환 사장, 강대석 신재생에너지 사 장, 김정철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사장, 백의 열 ㈜테크로스 환경서비스 대표 등 200여명이

김상풍 영광열병합발전 회장은 "최신 기술의 대

기오염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라며 "2년여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시작하 면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축하화환 대신 받은 쌀은 홍농읍에 홀로 사 는 노인과 한부모자녀 등에게 전달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 목포 평화광장 '맛의 거리' 거듭난다

음식특화 '사계절 바다정식 거리' 조성 전남도 '남도음식거리' 선정 5억 받아

목포시 평화광장이 음식특화 '사계절 바다정식 거리'로 조성된다.

목포시는 평화광장 일원이 전남도 주관 '2020년 남도음식거리 조성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도가 관광객 6000만 시대 달성을 위해 지역별 음식특화거리 조성에 5억원의 예산을

목포시는 병어, 민어, 갈치, 낙지 등 계절음식 표 다. 준 상차림을 개발해 '사계절 바다정식 거리'로 특 화하는 내용으로 공모에 도전해 선정됐다.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조성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맛의 도시 목포' 조성과 연계한 사업추진 계획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목포시는 사업 대상지에 조형물과 옥외 휴게 공 간을 설치하고 간판・보도블록은 물론 가게 안까지 노약자와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공간으로 정비한다.

또 영업주들과 함께 서남해의 값싸고 신선한 계 절별 수산물을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바다정식 표 준상차림을 개발해 보급한다.

청결·친절·바른 가격으로 모든 소비자를 만족시 킬 수 있는 음식문화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

남도음식거리가 조성될 평화광장은 올해 구조개 선(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서남권 최대 도심 속 친



목포시가 평화광장 일원에 남도음식 특화 '사계절 바다정식 거리'를 조성한다. 사진은 목포 평화광장 전

수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한다.

해변 맛길 30리의 출발점이자 불꽃쇼와 해상공 연이 함께하는 춤추는 바다분수가 펼쳐지는 곳으

로 남도음식거리 조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영암 농축협 10곳, 코로나19 성금 2900만원 기탁

영암군조사료경영체협 300만원 영암지역 올 성금 1억2800만원

영암지역 기업·단체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영암군조사료경영체협의회(회장 정운태)는 지난 20일 300만원을, 영암지역 농·축협 10개소

와 직원들이 29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 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에 사용된다.

현재까지 영암지역에서 모인 코로나19 극복 성 금은 1억2800만원에 이른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여수·광양항 질서 특별단속 여수해수청, 다음달 5일까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 지 2주간 여수항과 광양항에서 상반기 무역항 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수청은 단속 기간 불법 어로와 항만관제 위반 행위를 비롯해 항계 내 선박 수리, 위험물 하 역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한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 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야 간 항만 순찰과 부두와 해상의 동시 점검을 통해 단 속 효과를 높인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 보해야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서 "사고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위해 선박 종사자와 어민, 항만 이용자 모두가 무역항 질서 유지에 나서달라" 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은 윤달 기간 화장 예약 이 폭주하면서 3기의 화장로를 풀가동하는 등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풀가동 윤달 화장 예약 폭주…비상근무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윤달 기간 3기의 화장 로를 풀가동하며 1000건에 달하는 예약을 소화한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0 일까지 윤달 기간 남도광역추모공원에 900여건의 분묘 개장 유골의 화장이 예약 접수됐다.

해남군은 윤달을 앞두고 1개월 전부터 보건복지 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화장 예약을 받 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고령층 등을 대상 으로 방문과 전화 접수도 했다.

1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해 현재 개장유골 화장 예약이 908건에 이른다.

화장 후 안치 예약도 봉안당 88건, 자연장지 177 건 등이다.

이용객은 해남 67%, 완도 13%, 진도 18%, 관외 2% 등으로 3개 군 협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 용할 수 있는 서남권 주민이 대부분이다.

해남군은 친자연적 화장을 위해 유골은 한지 묶 음 포장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유 족 희망 시 매장기간이 오래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 해 동시 화장도 가능하다.

해남군은 윤달 기간 3기의 화장로를 최대한 가동 해 화장 수요에 대비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